



## (주)에스앤아이시스템즈, K-PRINT WEEK 대박 기자간담회 통해 2014 하반기 운영 전략 공개

(주)에스앤아이시스템즈(대표 김병환, www.snisystems.co.kr)는 지난 8월 27일부터 4일간 고양시 킨텍스전시장에서 열린 2014 K-PRINT Week에 독일의 바시스프린트(basysPrint) 본사와 함께 '고객감동'을 테마로 새로운 UV CTcP 전자동 솔루션과 포장인쇄에 적합한 VLF 시리즈, 플렉소용 디지털 장비인 써모 플렉스(Thermo Flex) 시리즈를 출시, 방문객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자료제공 | (주)에스앤아이시스템즈

### 형제아트인쇄 · (주)선경프린테크 · 삼성인쇄사에 860MCA · 860SCA · 860VLF 현장 판매

(주)에스앤아이시스템즈는 이번 전시회에서 중전의 베스트셀러 급인 860 시리즈는 물론이고, 차세대 레이저 기술을 탑재하고 자동인라인 편칭과 멀티카세트를 보강해 자동온라인 장비의 완성단계에 이른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다. 이와 관련해 (주)에스앤아이시스템즈는 생산공정에서의 자동화 요구, 작업자들의 편의성, 빠른 출력에 대한 열망에 완전히 부합하는 솔루션을 공급함으로써 2013년에 이어 2014년 상반기에도 놀라운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전시회 첫날에는 충무로의 운전인쇄전문업체인 (주)형제아트인쇄(대표이사 윤병업)와 860MCA(멀티자동온라인)장비를 계약하고, 파주출판단지 (주)선경프린테크(대표이사 최승용)와는 860SCA(싱글자동온라인)을 계약하는 놀라운 성과를 올렸다. (주)형제아트인쇄의 윤병업 회장은 "(주)형제아트인쇄가 바시스프린트 860을 도입하는 이유는 중전의 인쇄공정이 최근의 트

랜드에 따라 소량다품종, 빠른 납기, 품질 안정성 등 다양한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는 추세로 변화함에 따라 더욱 강력한 전자자동온라인 장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윤전라인의 정교한 편맞춤 시스템과 자동편칭은 작업시간과 생산시간을 줄일 수 있다. 멀티카세트 출력 시스템으로 효율이 더욱 높아졌으며 직원의 피로도와 노동력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파주출판단지내 상업 교육인쇄 전문업체인 (주)선경프린테크와의 계약식이 바시스프린트의 독일 본사 세일즈&마케팅 부문 크리스토퍼 레벤 사장이 동석한 가운데 열렸다. (주)선경프린테크 최승용 대표이사는 "교육출판 시장의 메카인 파주출판단지에서 이미 좋은 평판을 귀담아 들어 왔다. 하이델베르크 XL 4색, CD 5색 인쇄기, 유무선 제책라인 등의 각종 설비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나 빠른 작업과 납기를 통한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CTP의 필요성이 오랜 시간 대두돼 왔기 때문에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에스앤아이시스템즈는 전시회 이틀째에는 고양시 덕양구에 소재한 삼성인쇄사와 패키징용 하드 롱 CTP인 VLF 860을 계약 하면서 최대의 성과를 올렸다. 이와 관련해 윤종관 (주)에스앤아이시스템즈의 전무이사(쥬아피의 대표이사)는 “바시스프린트의 국제적인 명성과 더불어 국내의 하드 롱 사이즈 패키징 시장도 종전의 복잡한 필름작업에서 검증된 평판방식의 하드 롱 CTP 장비로의 전환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출시된 써모 플렉소 시리즈와 더불어, 하반기엔 바시스프린트의 탁월하고 안정된 시스템으로 특수인쇄시장 전반에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고 밝혔다.

### 김병환 대표이사 “작업자 편의성 극대화”

전시회 기간 중에는 기자간담회도 이뤄졌다. 기자간담회에는 김병환 대표이사, 윤종관 전무이사, 이진국 영업담당이사와 크리스토퍼 레벤 독일 본사 세일즈&마케팅 부문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자간담회에서 김병환 (주)에스앤아이시스템즈 대표이사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고객사로부터 ‘만족을 넘어 찬사’를 받고 있음에 자만치 않고 다시 한 번 고객만족을 위한 약속을 다짐하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365일-24시간 풀 카운트 시스템은 물론, 장비의 사전 점검으로 작업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할 것이다. 특히 찾아가는 서비스(Before Service System)를 구축해 인도 인쇄시장에서처럼 고객사로부터 명품으로 찬사(2013년 12월, Print Week가 시행한 ‘전 세계 CTP 중 인도시장에 가장 적합하고 편리한 장비는?’이라는 설문에 1938개의 인쇄업체가 참여한 결과, 55%가 UVSetter CTP를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 동안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항상 근거리에서



1. 2014 K-PRINT Week에 참가한 (주)에스앤아이시스템즈 임직원들 2. 전시회 기간 중에는 기자간담회가 진행됐다. 3. 김병환 (주)에스앤아이시스템즈 대표이사과 크리스토퍼 독일본사 세일즈&마케팅부문 사장

서 대응해 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들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성공담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히 바시스프린트 UVSetter-VLF 시리즈와 써모플렉소를 통해 대형 패키징 인쇄와 플렉소 인쇄 분



야에서 새로운 고객사들을 만나게 되는 만큼 지금처럼 신뢰를 기반으로 함께 하면서 시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 이진국 영업이사 “24시간 서비스로 이미지 제고”

이진국 영업이사는 “기존의 써말장비의 벽을 넘어 UV 일반판재로 CTP장비를 생산하는 바시스프린트 CTP는 전국 유수의 인쇄사와 출력업체에 100여 대 넘게 설치돼 있으며, 타사장비에 비해 월등한 내구성과 안정성을 자랑하는 한편, 7명의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일과시간 외에도 24시간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내시장에서 높은 브랜드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크리스토퍼 레벤 사장 “드루파95 이후 긴밀한 관계”

크리스토퍼 사장은 “자이콘은 벨기에의 인쇄장비 생산기업으로 디지털인쇄장비와 CTP장비를 생산하고 있으며, 자이콘프 리프레스 부문에서는 아그파에서 판매하고 있는 신문사용 바 이올렛 CTP를 생산, 공급하고, 바시스프린트 UV Setter와 함께 플렉소 인쇄용 출력장비 써모 플렉소(ThermoFlexX)를 생산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드루파95 이후부터 긴밀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주)에스앤아이시스템즈는 탁월한 영업능력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고객서비스를 통해 한국시장을 잘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 등의 부분에서 수시로 소통을 이어가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윤종관 전무이사 “국내 인쇄업계 상황 개선 일조”

윤종관 전무이사는 향후 A/S정책 방향에 대해 “국내시장에서 타사장비보다 내구성 측면에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A/S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주)에스앤아이시스템즈에서는 A/S비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며 “올해부터는 장비 서비스를 B/S개념으로 전환, 장비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점검하고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인쇄업계 상황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고 설명했다. G